

국어

잘 푸는

알고리즘

「독서편」

〈굵직한 정보 관계〉를 읽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도구 5가지

사실, 비문학 독해는 글을 읽고 그 안에 제시된 〈굵직한 정보 관계〉를 추출하면 끝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선지들을 풀어내면 끝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글 속에서 〈굵직한 정보 간 관계〉를 제대로 못 읽어 내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정보 관계를 정확히 추출해내고,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몇 가지 도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도구 1) 끊어 읽기 for 차분히 읽기

사실 국어에서 지문 이해를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안 읽었기’ 때문입니다. 대충 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몇 단어를 빼먹고, 몇 문장을 빼먹는 거죠. 이렇게 읽다보면 당연히 지문 이해도, 문제 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문을 일부러 생략하여 읽지 않더라도 읽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지나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글을 끊어 읽음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지나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위 문장과 같이 긴 문장을 하나의 호흡으로 읽으면 한 두 단어를 빼먹고 읽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끊어 읽으면 빼먹는 단어가 거의 않나오죠.

16세기 전반에 /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쌈을 싸먹을 때도 쌈을 과도하게 크게 싸면 어떻게 되죠? 먹을 때 여기저기 다 떨어지고, 입에 밀어 넣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씹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문장도 이처럼 한 번의 호흡으로 많은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면 정보들이 여기저기 흩어질 것입니다. **문장을 적절하게 끊고, 차근차근 글을 느끼며 읽어야 빼먹는 정보 없이 꼭꼭 씹어 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장을 끊는 크기(덩어리 짓는 정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정답은 ‘자신의 크기에 맞게’ 입니다. 쌈 싸먹는 크기가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문장을 끊는 크기 역시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잘게 잘라가면서 천천히 읽어보고, 이해의 덩어리가 커질수록 끊는 단위도 커지면 됩니다.

---

도구 2) 질문하기 for 굵직한 정보 관계 파악

질문은 (핵심의 시그널)입니다.

‘너 그거 알아?’

친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갑자기 궁금해지겠죠.

‘애가 지금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친구는 이걸 의도한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말에 집중할 수 있도록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자신이 할 얘기는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독서 지문의 필자 역시 똑같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는 독자의 호기심을 이끌어내고, 그것에 대해 답해 줍니다.**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 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드는 팝아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 독자 : 하이퍼 리얼리즘과 팝아트와 비교할 때 드러나는 특성이 무엇일까?

하지만 과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 독자 : 그러면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하려면 또 뭐가 필요한데?

이후 2006년에 암흑 물질의 중요한 성질이 탄환 은하단의 관측을 바탕으로 밝혀졌다. → : 그 중요한 성질이 뭔데?

물론 여러분이 던진 질문에 필자가 답을 해줄 수도 있고, 답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글을 읽고 떠오른 질문에 필자가 대답을 해준다면,

**필자가 여러분에게 일부러 질문을 유도하고 그에 대해 답해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정보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 정보니까요.**

필자가 강조하는 정보라면, 우리는 이를 중심으로 〈굵직한 정보 관계〉를 추출하면 되겠죠. 질문 유도 없이 툭툭 던지는 〈세세한 정보 관계〉들보다 훨씬 굵직한 내용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시체처럼 ‘검은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로다'라는 말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져줘야지, 필자가 굵직하게 말하고 싶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도구 3) 이미지화 for 굵직한 정보 관계 입력**

글을 읽을 때 글에 나타난 정보 간 관계를 머릿속에서 정리하고자 했지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지'를 통해서도 정보 간 관계를 머릿속에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생활공간에 전시해도 자연스럽도록 작품을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하였다.

위와 같은 문장은 '그림을 그려주는 문장'입니다. 어떠한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문장이니까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는 모르지만 전시 받침대가 없대요. **그러면 전시 받침대가 없는 어떤 작품의 모습(이미지)을 상상해주는 거죠.**

**왜 그렇게 이미지를 떠올려야 하나고요?**

언제나 단순 글자보다는 이미지가 훨씬 기억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글만을 제공해주는 소설보다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만화나 드라마를 더 쉽게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는 문장'에서는 억지로라도 머릿속에서 꼭 이미지를 떠올려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도구 4) 공감하기 for 굵직한 정보 관계 입력**

공감은 당연한 정보, 그럴만한 정보에 대해 그 당연함을 인정·납득해주는 것입니다. 수능 지문이라고 글에 쓰인 모든 내용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도 많고, 배경지식을 통해 추측 가능한 내용도 많죠. **이런 정보들은 억지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럴 만하다'고 공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위의 정보를 읽고, 우리가 이걸 따로 기억해야 하나요? 절대 아니죠.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그 당연함을 납득해버리면 이 정보는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 깊게 저장됩니다.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가 심벌즈 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한다. 이 중 전자를

고른음, 후자를 시끄러운음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문장을 읽고

글에서 <피아노 소리가 심벌즈 소리보다 좋다>고 했고, <피아노 소리 = 고른음>, <심벌즈 소리 = 시끄러운음>이라고 했으니 이 점을 기억하자!

라고 하지 말고, 그냥 지문의 말에 '공감'해주는 게 좋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심벌즈 소리보다는 좋다>고? 당연하지. 피아노는 혼자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하지만, 심벌즈는 혼자 연주가 가능하지 않잖아. 그래서 <피아노 소리 = 고른음, 심벌즈 소리 = 시끄러운 음>이구나.

라고 정보를 **자연스레**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물론 누군가는 피아노 소리보다 심벌즈 소리가 아름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문을 읽을 때는 위처럼 억지로라도 지문의 말에 공감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재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포를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한다.

위 문장에서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명칭 역시도 공감이 가능합니다. **이 명칭을 따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이퍼 리얼리즘? 이름 자체가 완전 사실적인 걸 추구하겠네!

이런 식으로 공감해주면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의 명칭과 정의를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명칭이 곧 정의니까요.

모든 정보 간 관계에 대하여 '아, 뭘 소린지 모르겠다. 강 땀으로 기억하자.'하지말고, 억지로라도 '아 당연한 거 아니야? ㅇㅋㅇㅋ'하며 읽어야 그나마 머릿속에 입력하기 쉽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

**도구 5) 표시하기 for 정보 관계 남기기**

그런데 아무리 글을 잘 독해하려 해도, 정보 관계가 머리에 잘 안 남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정보는 남겨야 합니다. 지문에서 언급된 정보는 지문에서 다시 활용될 수도 있고, 선지에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